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충남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을 찾아서

박춘섭 _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I. 시작하며

사회적경제¹⁾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은 중요한 PLAYER이다.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1844년)의 성공 이래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복지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협동조합'은 전통적 협동조합과 달리 생활지원·지역복지·교육·새로운 노동방식·고용 창출 등 보편적 성질을 내포하고, 커뮤니티의 질과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는 특징을 가진다(오카무라 노부히데, 2015).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새로운 협동조합은 사회적 혁신²⁾의 출발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금번 탐방은 이러한 새로운 협동조합운동, 사회적 혁신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남의 여러 조직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였다. 짧은 하루(2015년 6월 30일) 일정으로, 홍성에 있는 ①아하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서천의 ②에너지자립마을인 산너울마을, 그리고 ③서천생선구이가게협동조합을 방문하였다.

전통적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 비교

	전통적 협동조합	새로운 협동조합
활동영역	상품의 구매·판매	복지서비스·지역만들기(공익성)
대상	특정의 개인(한정성)	불특정 다수(보편성)
조직의 성격	공익(共益)·공조(共助)	공익(共益)·공조(共助)
구성원	단일 이해관계자	다중 이해관계자
사업규모	대규모	소규모
운영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역만들기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비교적 약함	지자체나 여러 단체와의 네트워크 연계가 강함

출처: 오카무라 노부히데(2015), 생활협동조합과 커뮤니티, pp.53.



II. 에너지자립 컨테이너 하우스의 가능성_ 아하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아하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이하, 아하생활기술조합)은 '적정기술'을 지역에서 전개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2014년 2월 홍성군 홍동면에 만든 협동조합이다. 아마 독자중 많은 분은 '적정기술'이 무척이나 생경할 것이다. 쉽게 정의하면, 적정기술이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 에너지소모형 기술이 아닌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삶을 영위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아하생활기술조합은 '적정기술'이 아닌 '생활기술'을 표방한다. 이유는 적정기술을 '지역민'에게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단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아하생활기술조합의 사업목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활기술'은 농촌지역인 홍동과 홍성에 도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중고컨테이너를 활용해 '에너지자립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도농순환행복마을 육성사업에 채택되어 가능하였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아하생활기술조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컨테이너 하우스는 다양한 적정기술이 들어가 있다. ①지붕에 소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작은 냉장고, 조명,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게 했고, ②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는 햇빛온풍기와 태양열 온수매트를 설치하였다. ③내외벽은 스트로베일 및 친환경 보온재를 채워 넣어 단열성을 높였다. ④ 통풍구조를 만들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 모델시설이기 때문에 배수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재원의 제약으로 화장실 등의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미완'의 컨테이너 하우스다. 그러나 컨테이너 하우스가 가진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우선 귀농귀촌자들의 임시거처로서의 활용성이다. 최근 홍동면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거의 부족으로 홍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홍성군에 거처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하우스는 좋은 대안- 법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적정기술+에너지자립'을 환기할 수 있는 좋은 체험 및 모델사업으로 가능한 면이다. 적정기술운동은 워크숍을 통한 현장실습을 기반으로 한다. 즉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 컨테이너 하우스제작은 실제 삶과 연결된 적정기술로, 그리고 에너지자립이 가능한 기술로 실습 할 수 있으며, 제작기간도 한 달 정도로 충분히 적정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교육과정으로 기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적정기술협동조합들의 사업아이템으로 성장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중고컨테이너를 활용해 임시거처를 만들어왔으나, 실제 거처로서는 기능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아하생활기술조합이 만든 컨테이너 하우스는 실제 거처로서 기능하여 이를 사업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일부인용).
- 2) 사회적 혁신이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로 유발되고 1차 목표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런 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를 뜻함(제프 멀건, 2011)



[사진 1] 컨테이너하우스와 아하생활기술협동조합 조합원들
출처: 마을활력소 홈페이지(<http://hscb.tistory.com/11>)



[사진 2] 아하생활기술조합 작업장 겸 전시장 모습

III. 열정과 합의로 이루어낸 귀농귀촌+에너지자립마을_산너울 마을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에 있는 산너울마을은 2009년에 조성되었고, 도시민유치를 목적으로 한 마을조성사업이다. 산너울마을의 기반시설조성은 당시 농림부 '전원마을사업'을 활용하고,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당시 산업자원부의 '그린빌리지사업'을 활용하였다. 산너울 마을의 공사는 2007년 11월 착공하여 부지를 정리하고 건축공사부터 시작하였으며 2008년 8월에서야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작되었고 2009년 3월 완공·입주하였다. 산너울마을에 투입된 비용은 전원마을사업 15억 원, 그린빌리지사업 5억 7600만 원의 지원사업과 자부담 43억 6800만 원으로, 34가구의 마을이 탄생하게 되었다.

산너울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였던 (주)이장 임경수씨에 따르면, 산너울마을 조성에는 ① 퍼머컬처의 활용, ②코-하우징(Co-housing) 개념도입, ③주민참여형 설계(Community Based Design), ④CM(Construction Management) 도입과 같은 원리를 활용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한다.

우선 호주의 빌 몰리슨(Bill Mollison)이 정립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체계인 '퍼머컬처'를 활용한 산너울마을에는 34가구의 주택과 함께 텃밭, 공동농장이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코-하우징 개념에 따라 취미실, 운동실, 도서실, 회의실 등의 공동시설이 조성되어 마을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시설은 설계자의 일방적인 설계가 아닌 입주자들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와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실제 코-하우징이 가능할 수 있었다.

주민참여형 설계(Community Based Design)는 입주기간 정기모임인 달모임을 통해 가능하였다. 달모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개별가구 건축설계는 기본형을 바탕으로 입주자의 개인주문을 받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충남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을 찾아서

영하였다. 마을의 나무심기, 놀이터, 텃밭은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조성하였다. 이러한 설계 역시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도 감수- 예를 들어 집터가 작아지거나, 마을공동주차장 옆 집- 하겠다는 합의가 없이는 이러한 설계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주)이장은 입주자 모임, 서천군청, 서천군의 용역을 진행하는 토목, 조경 등의 회사를 통합적으로 조정, 관리하면서 전체사업을 관장하여 CM(Construction Management)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역시 입주자들과의 소통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상하지 않은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이 수용하고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산너울마을은 생태마을로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로서의 지향으로 설계되었다. 각 가구에 3kw급 태양광패널 및 태양열 온수 및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에너지 비용이 절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비용은 각 가정마다 달라, 벽난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더욱 적게 든다고 한다. 상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빗물은 모아 텃밭 등에 활용한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갈대를 통한 자연정화를, 그리고 마을의 길은 친환경 보드블록을 사용하여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너울마을의 탄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2006년 2월 전원마을사업지구가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가와 지자체(충남도-서천군)간의 연계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거의 2년을 허비한 후 2007년 11월 착공한다. 당시 전원마을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은 비단 산너울마을에 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였다고 한다. 이러한 공사지연으로 중간에 좌초된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산너울마을은 이러한 어려움을 '달모임'을 통해 이겨나갔다. 달모임은 산너울마을 입주자간 정기모임으로, 2005년 9월부터 거의 매월 열렸다. 달모임을 통해 입주자들은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를 분담할 수 있었고, 계단식 논의였던 조성부지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집이 작아지는 가능성도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마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그 결과 건설재료 선택에서부터 마을자치규약까지 만들어 낸다.

특히 마을자치규약을 수용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산너울마을 자치회장인 정성기 씨의 이야기는 주목할만 하다. 마을자치규약의 내용 중 가축사육 금지가 있다. 한마디로 산너울마을에서는 가축을 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반려견은 가능하지만 고양이는 불가능하다. 어찌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규약이 마을공동체의 유지와 성공의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산너울마을 자치규약은 입주민간의 가나긴 합의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결정된 사항은 주민이 바뀌어도 계속 유효하게 하였다. - 물론 주민간 협의를 통해 개정은 가능하다- 이러한 숙의과정과 규약유지가 입주민간 신뢰의 기반을 형성한 준거틀을 만들어냈고, 나아가 마을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산너울마을 역시 농촌마을이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우선 일자리문제. 일자리는 특히 젊은 부부들의 정착을 어렵게 한다. 실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도시로 떠난 가족이 있다고 한다. ② 원주민과의 갈등



등.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산너울마을에 대한 지원(20여억원)은,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왔던 자신들에 대한 역차별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렇기에 원주민과 산너울마을과의 교류와 왕래는 그리 잦지 않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산너울마을은 공동체사업인 '맑은 냇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원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사진 3] 산너울마을 길가 풍경



[사진 4] 빗물받이통



[사진 5] 주택에 설치된 벽난로 굴뚝모습

IV. 로컬피쉬를 고집하는 협동조합식당_서천생선구이가게협동조합

산너울마을 30분 거리에 있는 '서천생선구이가게협동조합(이하, 생선구이가게)'는 금강하구둑과 갯벌이 한눈에 보이는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생선구이가게의 탄생은 서천을 사랑하는 몇몇 시민운동가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홍동의 '동네마실방 딸'의 탄생과 비슷한 듯 다르다. 홍동의 경우, 마을에 하나밖에 없던 호프집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술집 단골들이 의기투합하여 출자금을 모아 가게를 인수, 협동조합 가게를 운영한다.

생선구이가게 역시 그 시작은 마땅히 '서천다운 음식'을 먹을 만한 데가 없다는 '투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홍동의 '동네마실방 딸'과 다른 것은 생선구이가게는 단지 시민운동가들만의 가게가 아닌 국립생태원 등의 기관으로 찾아드는 방문객들에게 서천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고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명소로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생선구이가게는 2020년까지 5개의 가게를 열고 1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노인, 청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서천의 다양한 사람과 단체를 연결해 지역순환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 중이다.

우리가 생선구이가게에 방문했을 때, 생선구이가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다. 방문한 날짜에

중요한 지역현안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에 생선구이가게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사장 등을 만날 수 없었다. 다만 근무하는 종사자를 통해 현재 생선구이가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알 수 있었다. 첫째는 원재료를 서천 및 국내산 해산물만을 고집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생선구이가게는 서천군에서 잡히는 어종을 중심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서천군에서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산 것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방침 때문에 조리사들은 불만이 생겨 나곤 한다. 국내산만을 고집함으로써 가격대비 좋은 외국산 생선을 사용하지 못하여 좀 더 맛있는 요리를 내놓을 수 없다는 불만이다. 개인적으로는 생선구이가게의 요리들은 맛이 있어 좋았다. 그러나 일반식당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을 가진 고객이라면 내놓은 생선크기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직함을 승부하는 생선구이가게가 서천 및 국내산 생선을 고집하는 방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면 고객들은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식당운영의 어려움이다. 생선구이가게에 단체손님이 왔을 때, 또는 손님이 몰렸을 때 식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듯 했다. 이것은 식당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마도 가게운영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는 경력직 매니저의 채용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초창기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다. 생선가게 종사자에 따르면 초창기에는 가게의 2층까지 활용하였지만 단체손님이 없는 경우 2층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층까지 안내할 경우 직원의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 지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들만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후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6] 생선구이가게 전경



IV. 맺음말

방문한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업모델은 아직 미완이다. 아직은 정착된 사례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아하생활기술조합이 제작한 컨테이너 하우스의 경우, 좀 더 제작노하우를 쌓아야 하며, 실제 거주하면서 컨테이너 하우스의 문제를 파악해야 하고,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해야 하는 등 과제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기존 방식을 바꾸어보려는 '새로운 협동조합'방식의 노력이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적절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된다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경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선택지로서 사회적경제가 존재할 때, 우리 삶의 행복, 그리고 충남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오카무라 노부히데 저, 충남연구원 역(2015), 생활협동조합과 커뮤니티, 한울

임경수, 「눈물과 보람의 산너를 생태마을」, 월간 「함께 사는 길」 2009년 1월 13일, (<http://ecoview.or.kr>, 접속 2015.8.)

제프 멀건 저, 김영수 역(2011),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시대의 창